광주비엔날레 5·18 40주년 특별전 '메이투데이'(MaytoDay)

임민욱 作 '채의진과 천개의 지팡이' 〈광주비엔날레 제공〉

광주에서 베니스까지 5·18 동시대성 모색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독일, 대만, 이탈리아…'다국적 프로젝트'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에서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다국적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메이투데이'(MaytoDay)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 특별전은 오는 5월 시작해 8월 광주를 거쳐 내년 5월 베니스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특별전 '메이투데이'는 40년 전의 5·18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민주주의 정신의 동시대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제 'MaytoDay'는 5월(May)과 일상 혹은 하루(Day)를 의미하는 두 단어를 병치해 1980년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오늘(today)로 재배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5-6월 말, 한국, 대만, 독일, 3개국 3개 도시에서 4개의 전시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먼저 대만의 타이베이(5월1일)에서 첫 번째 전시가 열리며, 5월16일에는 서울의 도시건축전시관과 아트선재센터 두 곳에서 전시가 각각 열린다.

독일 쾰른 전시는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럽 내 코로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6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각 전시들이 함의하고 있는 서사들은 오는 8월 광주에서 하나의 전시로 재편돼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정치적, 예술적 접점에 주목하게 될 예정이다. 내년 5월, 전시는 다시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 베니스 현지에서 열려 세계를 무대로 확장될 계획이다.

특별전을 위해 여러 기획자들이 뭉쳤다.

독일 전시는 네덜란드의 미술기관 카스코(Casco Art Institute)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빛나 큐레이터가 기획에 참여했다. 그는 이번 특별전에서 '광주 레슨'(Gwangju Lessons)을 주제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실제로 운영됐던 광주시민미술학교를 차용, 새로운 형태로 재현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2016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인 르완다 출신 크리스티안 니암페타는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공동작업으로 만든 작품을 독일 쾰른의 세계 예술 아카데미에서 선보인다. 쾰른은 고(故) 윤이상 작곡가가 1981년 작곡한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가 초연된 장소여서 의미를 더한다.

대만은 황 치엔흥 타이베이예술대학 조교수가 기획을 맡았다. 1970년대 후반 대만 민주화운동과 1980년 광주 사이의 공통된 민주주의 연대에 착안, '공감'을 키워드로 한 전시를 타이베이 관두미술관에서 선보인다.

크리스티안 니암페타 作 〈맨발소피아 듀런이 기획의 아낙〉 재해석(진행중)

아르헨티나의 전시는 '가까운 미래의 신화'(Myths of the Near Future)를 주제로 부에노스아이레스 현대미술관의 선임 큐레이터인 하비에르 빌라와 전시기획자인 한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처럼 군부독재시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시는 과거 고문이 자행되던 구 아르헨티나 해군사관학교인 ex ESMA (Memory and Human Rights Space)에서 열린다.

서울은 5월16일부터 6월14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아트선재센터에서 각각에 2개의 전시가 동시에 열린다. 전시기획자 우테 메타 바우어가 서울아트선재에서 '민주주의 봄'(Spring of Democracy)를 주제로 전시를 선보인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현대미술센터의 창립이사이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김준태 시인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민주주의의 봄'이라는 주제의 전시를 통해 아시아 최초의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에서 발표된 주요 작품들을 재조명하고, 민중미술과 아카이브 자료들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는 '오월의 마중'을 주제로 열린다. 전시는 역사적·예술적 맥락에서 5·18을 조명하며 1980년대와 그 이후의 한국 민중미술 목판화를 조망하는 '목판화 섹션'을 소개한다. 김진하 나무갤러리 관장에 의해 기획되는 이 섹션은 목판화를 중심으로 격동기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정겨울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167〉육십사괘 해설 : 45. 택지췌(澤地萃) 下

대길무구(구사), 비부 원영정 (구오), 재자체이(상육)

大吉无咎, 匪孚 元永貞, 齎咨涕洟

췌(萃)괘 구사의 효사는 '대길무구'(大吉无咎)다. 즉 '크게 길해야 화가 없다. 크게 길해야 화가 없다는 것은 위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해 상전에서는 '대길무구 위부당야'(大吉无咎 位不當也)라 했다. 육사는 자기 위치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육사의 위치는 주인, 사장 아래에 있는 지배인이나 매니저이니 밑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쉽고 구사도 중음(衆陰)에 접하고 있고 인심을 얻기 쉬운 위치에 있음으로 민심은 구오보다 구사 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 초육이나 육삼의 효도 구사와 응비(應比)가 돼 구사에 마음이 끌려 있다. 이러한 자리에 있으니 구사는 대인군자가 아니면 큰일이 난다. 만일 구사가 소인이라면 이처럼 모여드는 인심을 바탕으로 구오 군위의 세력을 꺾는 큰 불상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사는 대인이고 사심이 없는 군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대길은 대인이면 길하고 소인이라면 흉한 것이다. 상전에서는 음위에 양효가 있어 위치가 올바르지 않으나 '대인이라면 대길'이라고 해 조건을 붙이고 있다.

췌지수(萃之需 四動)

택지췌 | 수천수

서죽을 들어 구사를 얻으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거나 신용을 얻어 교섭이 많이 들어오는 때지만 이로 인해 훗날 남에게 의심을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대인관계에서 고심하는 때다. 사업, 거래, 교섭 등에서는 이익을 얻어 발전하는 운세지만 인간적인 고뇌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는 도량이 있어야 하며 물건이 모이는 때니 수중에 큰돈이 없다면 손해를 볼 수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전이나 여행 등은 평안하다. 혼담은 성사되는 인연이나 정혼 이외의 다른 이성의 개입을 주의해야 한다. 잉태는 임신하였고 평산이다. 기다리는 일은 소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항심(恒心)을 잃으면 재난이 있고 가출인이나 유실물은 변감(變坎)으로 있는 장소가 바뀌어 발견하기 어렵다. 병은 가슴아래 명치부위에 체기(滯氣), 비위의 쇠약으로 인한 장해, 내상(內傷) 등으로 오래 지속되고 악화의 조짐이 있다.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온다. 구사의 [실점예]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효사의 '대길무구'(大吉无咎)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락이수(河洛理數)에서는 '대길해서 무구하다'라는 뜻과 '대길해야 무구하다'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구사는 하괘의 삼음(三陰)이 찾아와 함께 놀고 있으니 힘은 좋으나 음위에 양효가 있어 앉는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전 사례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재물이나 재산은 모이는데 승진이나 관운을 좋지 않다. 오직 대덕군자(大德君子)라야 개과(改過)해 복을 얻는다.

췌(萃)괘 구오의 효사는 '췌유위 무구 비부 원영정 회망'(萃有位 无咎 匪孚 元永貞 悔亡)이다. 즉 '췌의 시기에 자리를 얻으니 화가 없다. 아직 믿음을 얻지 못했으니 크게 오랫동안 정도를 지켜야 후회가 없다'는 뜻이다. 상전에서는 이를 '췌의 시기에 바른 자리를 얻었으나 뜻이 아직 빛나지 못한다'고 해 '췌유위 지미광야'(萃有位 志未光也)라고 말했다. 위치가 있고 모이는데 앉은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빛이 나지 않는 것이다. 구오는 강건중정의 효로 주괘의 위치에 있어 중음(衆陰)이 모여온다. 군의 덕화(德化)에 감읍(感泣)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지위의 위광(威光) 때문에 모이므로 무구(无咎)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여기에 취약(脆弱)함이 있다. 그 까닭은 모이는 것에 진심이 없기 때문에 '비부'(匪孚)라 한 것이다. 이를 상전에서는 '미광야'(未光也)라 했고 구사인 막부(幕府) 장군이 구오를 가리고 있어 중음(衆陰)의 백성들은 군왕의 존엄을 모르는 것이다. 서죽을 들어 구오를 만나면 지위는 있어도 실력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에 불평불만을 품지 말고 자신이 가야할 길을 지키고 오랫동안 계속해 나가면 힘을 얻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

췌지예(萃之豫 五動)

택지췌 | 뇌지예

운기 운세는 표면상은 좋지만 내실이 없고 이익도 없을 때이지만 초조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지금의 기운을 스스로 지켜 나가면 드디어 나중에 향상된다. 소망 등 원하는 것도 통달해 기쁨을 얻지만 실익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겸손하게 때를 기다려 나아가면 행복의 길운을 만난다. 거래, 사업, 경영, 계획, 교섭 등에 있어서는 협력자나 아랫사람들을 의심하기 쉽지만 관용으로 포용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면 이익을 얻게 된다. 주소, 거소의 이동에는 불안함이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혼담은 좋은 인연이니 성사시키도록 해야 한다. 잉태는 초기에는 난증(難症)이 있으나 위험하지는 않으니 안산이다. 기다리는 것은 소식을 얻기 힘들고 가출인은 진(震)의 세력에게 달려 나갔으니 돌아오기 힘들다. 병은 변괘 진(震)이 놀라는 의미나 이양효(二陽爻)에서 일양효(一陽爻)을 잃었으니 쇠약해지고 급변 악화의 조짐이 있다. 병증은 여러 증세가 합해 위태에 빠지기 쉽다. 날씨는 흐림 속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고도탄상은 '모인의 운기 운세점'을 점해 구오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췌괘는 기쁘게 쫓는 것에는 인심이 모이는 것이므로 췌괘라 하고 사물이 모여 교통하는 때로 본다. 호체(互體)에 풍지관(風地觀)이 있어 신령이 모이는 때지만 신은 지성을 가지고 제사하면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흩어지는 것(渙)이다. 지금 오효를 얻었으니 자기 아랫사람인 육사가 권위를 휘둘러 자신의 성의를 밟고 숨어서 많은 사람들과 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나는 높은 지위에서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 육사는 내 권위와 덕을 빼앗아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세태가 그러한 때이니 개의치 말고 자신의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육이는 나와 응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권위는 내게로 되돌아온다'고 했다.

췌지비(萃之否 上動)

택지췌 | 천지비

췌괘 상육의 효사는 '재자체이 무구'(齎咨涕洟 无咎)다. 즉 '슬피 탄식하고 흘리며 통곡하나 허물은 없다'는 뜻이다. 초육은 췌의 처음에 해당하고 상육은 끝이다. 이제 췌가 극해 흩어지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써 애절한 원망이 생긴다는 의미다. '재자'(齎咨)라는 의미는 탄식하고 슬퍼하는 형용이고 '체이'(涕洟)는 눈물, 콧물 흘리며 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상효는 췌가 끝나는 시기로 위치가 높아 실익(實益)이 없고 하괘의 음효들이 마음을 모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상육은 태의 주효로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를 상전에서는 눈물콧물 흘리면서 위치가 편안하지 못해 뜻을 얻지 못한다고 해 '재자체이 미안상야'라 말했다. 서죽을 들어 상육을 얻으면 가정사나 내부에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때다. 눈물을 흘릴 만큼의 고통이 오고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나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다. 사업, 거래, 교섭, 계획, 원하는바 등은 울어야 하는 일이 생겨 반드시 실패한다. 신규의 일은 절대 불가하고 물러서서 방어하는 것이 득책이다. 태는 언변(言辯)으로 구설수로 흉화를 초래하고 혼담은 성사가 안 되고 잉태는 태아가 너무 크거나 늦어져 수술하거나 흉해(凶害)가 있다. 기다리는 것은 기대와 달리 비탄에 빠지고 가출인이나 실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병은 변비(變否)해 위급하거나 사람들이 모여 울고 있는 묘비상이다. 날씨는 맑고 흐림이 반복된다. [실점]에서 췌괘 상효를 만나면 상효는 물이 넘쳐 홍수가 나는 때이니 눈물 흘리고 후회막심이므로 절대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

〈동인·도시계획학박사 062-654-4272〉